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체육관, 룡라인민유원지유희장에 새로 건설한 립체를동 영화관, 전자오락관들과 완공단계에 이른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 개건된 평양체육관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평양체육관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개건보수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중앙현관부의 문들을 무개있게 설치하고 현관부들에 금집을 형상한 조각을 붙이였으며 계단의 란간들도 컵으로 형상하니 체육관으로서의 품격과 체모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도자육이 뜨겁게 아로새겨진 평양체육관의 연혁사에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경기장홀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경기장홀 천정에 금속장식판을 새로 설치하니 실내가 환해졌다고, 보기 좋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경기장홀의 바닥재를 새로 깔아놓고 관람석의자들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해놓으니 정말 멋있다고, 완전히 때뵈기를 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경기장바닥의 립성과 공간소리울림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계적수준이라고, 그 어떤 국제경기도 진행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경기장홀 바닥에 여러 경기들을 진행할수 있는 구획선들을 쳐놓아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그러시면서 대회를 비롯한 행사들을 할 때에는 바닥에 주단을 쳐놓아 평양체육관을 다용도, 다목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주석단 뒤부분에 3,000여석의 좌석을 새로 설치하여 경기관람과 행사를 할수 있게 하였으며 주석단과 관람석벽면을 돌가루도장재로 마감하니 체육관으로서의 면모가 더 잘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체육경기와 행사를 할 때 실내조도가 서로 다르게 2중조도체계를 세웠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조명상태에 대해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오르시며 홀 및 복도구간의 시공정형을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출입구와 매 층들에 안내판을 설치해주고 벽면들에는 체육과 관련한 상징마크들과 그림, 벽시계들을 걸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여러 층들에 꾸러진 선수침실, 감독실, 훈련실, 식당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평양체육관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개건보수공사를 진행한 대외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새로운 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속에 력사가 있는 평양체육관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되였다고 하시면서 체육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정상관리, 정상운영을 잘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룡라인민유원지 유희장에 새로 건설한 립체를동영화관과 전자오락관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먼저 룡라립체를동영화관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룡라립체를동영화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설비들의 특성, 영화관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관람실들과 조종실, 편집실을 돌아보시고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립체를동영화관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5호관람실에 들리시어 3차원립체영화화면인 《우승자들》,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를 몸소 관람하시면서 동영상의 질과 음향효과, 물동상태를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영화관의 봉사시간은 몇시간이고 하루에 몇명 관람할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앞으로 룡라립체를동영화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 있는것만큼 관람조직과 설비관리를 잘하여 영화관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평양시뿐만 아니라 각 도소재지들에도 이와 같은 영화관들을 꾸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현대적인 룡라립체를동영화관이 일떠섬으로써 룡라인민유원지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올것이라고 하시면서 영화관과 해당 부분의 일군들이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된 전자오락관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전자오락관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은적속에서 인민들이 이제로운 오락세계를 맛볼수 있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룡라유희장의 유희시설들의 가동상태와 봉사활동정형을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이날 룡라인민유원지에 새로 건설한 야외공연무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룡라인민유원지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을 지니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 찾는 유희지관리를 더 잘하고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이 몸가이에서 뵈게 된 군인건설자들은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군인건설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립상을 모실 실내물놀이장 중앙홀을 돌아보시면서 장군님의 립상을 밝고 정중히 잘 모시기 위한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었다.

물놀이장상점이 전개되게 되어있는 곳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상점을 봉사시설로서의 특성이 살아나게 잘 꾸리고 수영복과 물안경 등 물놀이기재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미끄럼대수조, 파도수조를 비롯한 각종 물놀이수조들과 여러 체육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공법의 요구대

로 시공을 질적으로 하고있다고 평가하시었다.

꼭선미가 살아나는 2층 로대식당구역을 지나시면서는 식탁과 의자배치를 건축물과 조화되게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었고 식당주방에 들리시어서는 설비들을 좋은것으로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실내물놀이장의 야외로대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투명강질유기유리를 씌운 4면체로 된 지붕을 돌아보시였으며 야외물놀이장의 물미끄럼대와 수조, 체육유희시설들, 인공기암괴석, 기능회복중심 등을 바라보시면서 건설에서 해당한 부지면적에 건물과 시설물배치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문수물놀이장은 건축공간리용에서 최적화의 본보기라고 평가하시었다.

실내물놀이장의 외벽을 보시고 대상특성에 맞게 갈매기와 곱뿔어, 물방울 등을 색타일로 형상하면 외벽처리가 더 특색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문수물놀이장 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것만큼 지금부터 물놀이장운영을 잘하여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모든 조건을 세계적수준에서 갖춘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하시면서 마음껏 웃고 떠들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만 모습을 그려보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당창건 기념일까지 문수물놀이장을 훌륭히 완공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는것을 군인건설자들에게 최고사령관이 다시금 호소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 경기를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9월 15일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 성인급여자 63kg, 69kg급경기를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기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뵈은 국제력기련

맹 부위원장 겸 아시아력기련맹 1부위원장 겸 아시아력기련맹 서기장, 아시아력기련맹 부위원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가 훌륭히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 여러 나라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를 진행하고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아시아력기련맹과 국제력기련맹을 비롯한 해당 기구들에서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의 성과적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기에서는 우리 나라의 리정화, 려은

희, 조복향선수들이 꾸준히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시상식에서는 선군조선의 역센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체육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에게 고무적인 힘을 안겨준 우리 선수들에게 금메달이 수여되고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퍼지는 속에 랑홍색공화국기가 게양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훌륭한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을 축하하시어 박수를 보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10여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녀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선수권대회가 체육인들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경기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전력 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 회천 2호발전소에서 -

현시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자면 대화와 북남관계의 항시적인 동반자, 민족문제해결의 필수적인 요소로 되게 하여야 한다.

에로부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자존심이 높으며 창조력이 매우 뛰어난 민족으로 이름떨쳐왔다. 그러한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열되어 서로 총구를 맞대고 대결하여 온지도 근 70년이 되어온다. 북과 남은 오랜 기간 갈라져 적대해왔어도 단군이래 한파줄을 나누고 같은 말을 하며 하나의 문화로 민족적뉴대를 잇고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예나 지금이나 조선민족의 혈연적감정, 동포애는 변함이 없다.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분

렬이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 있는것은 조선반도의 비극이고 민족의 수치이다. 겨레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뜨우는 대결과 분렬의 세월을 이제는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투철한 민족

관, 민족적립장을 가지고 서로 마주앉아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인간이 있는 곳에 대화가 있고 대화가 있는 곳에 화목이 도모되고 발전이 촉진된다. 이는 사이에는 친목을 두터이 하고 부족함것은 호상교류로 해결방도를 찾으며 용이진 마음을 진정어린 말로 푸는것이 대화이다. 오

랜 세월 마음에 덧쌓인 불신의 앙금을 가지고 서로 대립되는 주장과 당파적리해관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통일행로에서 무엇으로도 대신할수 없는것이 바로 대화이다. 지나온 6.15시대를 통하여 북과 남은 대화를 통해 민

군사당국자회담을 비롯하여 무려 140여회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였다. 또한 민간급 부분별, 계층별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사이의 통일대화와 체육, 문화, 과학,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행사와 협력사업을 위한 회담과 접촉들이 폭

넓게 벌어졌다. 북남대화와 접촉들은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에 의해 비록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끼리 리념밑에 줄기차게 이어졌으며 좋은 합의들도 이루어졌다. 오늘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국면을 잘 살려나가는것은 민족이 바라는 대로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최근 북과 남은 여러 차례의 당국실무회담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와 아량을 보임으로써 폐쇄위기에 놓였던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구원하고 정상화의 동을 다시 울릴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쌍방이 진지한 자세에서 회담에 임하면 풀지 못할 문제란 없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는 날로 고조되고있으며 자주통일로 향한 겨레의 거세찬 진군의 발걸음은 누구도 막을수 없게 되였다. 북과 남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나갈 때 관계개선도 이루어지고 온 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통일의 날도 하루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대화는 문제해결의 방도

은 민족이 일일천주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유훈을 받들어 삼천리강토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내놓으시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조국통일은 나의 일생을 관통하고있는 변함없는 의지이고 신념이라고,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는 민족대단결이라고 하시며 통일에국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수령님이시었다.

해방직후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민족앞에 분렬의 위협이 질게 드리워졌던 그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역사적인 4월남북연석회의와 같은 전민족적인 통일회합이 마련될수 있었는것도, 조국통일운동의 매 역사적단계마다 조국통일3대헌장과 같은 우리 민족 모두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 마련될수 있는것도 애국애족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로고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위업과 유훈을 받들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통일위업실현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

절세 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 어

어 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새 세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마련되었으 며 10.4선언의 채택으로 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그것을 고귀한 밑천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신다.

지난해 3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결과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찾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깊게 바라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대원수님들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회고하시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시었다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 존함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후손대대에 길이



판문점을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1(2012)년 3월

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친필비를 모시도록 하시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로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통일의 의지와 결심을 얼마나 확고부동한가를 내

께 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었다. 이날의 판문점시찰은 절세위인들의 조국통일위업을 그대 로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통일의 의지와 결심을 얼마나 확고부동한가를 내

외에 과시한 력사적사건이었다.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보신 그이께서는 지난해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돌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

안을 위한 민족공동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개성공정지구 정상화를 비롯한 대화와 협력, 신뢰와 화해, 단합의 기운이 높아지고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통일사

상을 열렬히 지지하고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국제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총서기 미하일 반첸코는 말했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국통일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통일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할것을 강조하시면서 새 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분렬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이라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가르치심은 그 누구에게나 명백한 진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민족의 운명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시다. 그이께서 계시어 우리 겨레는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낙관하고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 6.15통일시대의 흐름은 그 어떤 외세도 그에 반동일, 반민족세력과 가로막을수 없다.

절세위인들의 통일위업과 유훈을 받들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겨레의 성스러운 애국투쟁은 반드시 통일되고 번영하는 찬란한 래일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조국통일에 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중에서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렬은 곧 매국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합니다.》

선군의 기치높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기자)》에서 선군사상은 김일성주석의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과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으로 일관되고 철의 신념과 의지에 기초한 혁명적인 사상리론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선군이라는 시대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 원래 세계사회주의운동과 반제투쟁의 력사를 놓고볼 때 선행리론에서는 근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옹호해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선행리론에서는 선군이라는 말자체가 없었다.

조국을 방문하여 공화국 창건 65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나눈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리리며 또 한분의 위인을 모시어 내 조국은 머지 않은 앞날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로 일떠서게 될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정열에 넘치고 인자함이 가득한 환하신 영상,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담배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우리리며 나는 서론해한 김일성광장 주석단에서 공화국창건 35돌을 축하해주시던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옵는것만 같았다. 머나먼 이역방에서 조국을 그리며 사는 우리 해외

그러나 민족의 자주권과 조국수호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기성공식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정세의 변화와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여 온 나라가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1990년대 중엽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조선이 몇해를 넘기지 못하고 《붕괴》될것이라고 떠들면서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사면팔방에서 달려들었다. 날 무더기 우세해지는데 이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과 압력,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공화국은 최대의 위협을 당하

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침에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여기에 몇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하여 공화국은 전대미문의 엄청난 난국에 처하게 되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이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혁명적의 신념과 의지, 담대한 배짱에 의해 생겨났었다.

내 나이 80고령이다. 흉안의 시철 아버지수령님과 조국해방의 운인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따르며 동포사회의 권익과 애국을 위한 모란찬 일에 몸담고 살아가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열백번 옳았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이때부터 세계정계에서 조선의 선군정치가 한 나라에만 국한된 정치가 아니라 하면서 이를 따라배우려는 기운이 급격히 높아 갔으며 선군이라는 말은 현 시대, 자주시대의 기본추세를 반영한 시대로 되었다.

오늘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 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척의 지지점으로 하여 공화국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넘겨다볼수 없는 불패의 보루로 다지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신다.

참으로 선군사상은 불패의 군력에 의거하여 전진하고 승리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우리 시대의 가장 옹호바른 지도적지침이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훌륭히, 가장 완벽하게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며 노도쳐가는 군중시위대렬의 힘찬 발걸음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조국인민들의 드높은 열의와 불패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제일동포들은 해마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하였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아래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의 강국으로, 필승불패의 선군조국으로 빛나는 그 존엄과 기상에서 조선민족의 일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울리며 노도쳐가는 군중시위대렬의 힘찬 발걸음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조국인민들의 드높은 열의와 불패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밝은 래일에 대한 확신에 넘친 조국인민들의 드높은 발걸음에서 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애국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애국의 한길만을 걷고걸을것이라는 마음속진정을 굳게 가슴다게 되었다.

오늘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위업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지족을 울리며 보부당당히 행진해가는 열병대오와 폭풍

주체성과 민족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와 민족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가자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야 한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해서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하는 조건에서 주체성을 어떻게 견지하고 민족성을 어떻게 살려나가는가 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곧 자주성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며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 가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께서 한평생 정치신조로 삼으시고 철저히 구현하신 령도방식이고 실천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수심성상 확고히 견지하신 자주 원칙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굳건히 이어지고있다.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천명하시고 강성변명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주체성의 신념, 민족의 기상을 높이 떨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국가건설과 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민족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도록 하시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해 공화국은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높이 떨치며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준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조국의 강성변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나라와 민족의 강성변명을 하루빨리 이룩하자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

는 모든 문제를 자기 힘에 의거해서 자기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자기 식이 제일이고 자기 힘보다 강한것은 없다. 애국위업실현에서 공화국의 투쟁방식은 주체의 신념으로 자기 식,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것이다. 공화국에서 강성국가건설이 심화될수록 높이 들고나가는 구호도 《우리 시대 로 살아가자!》이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헤치며 대비약, 대혁신을 창조하는 힘도 자력갱생의 정신력이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악랄하고 끈질긴 경제봉쇄와 압살책동속에서도 발전된 몇개 나라들의 독점물로 되어있는 CNC기술을 개발하고 고속화, 조정밀화, 지능화된 CNC설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고있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가 부흥과 비약의 진로라는것을 증명하고있는것이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자기 땅에 불이 고 눈은 세계를 자기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주체적립장에 서서 자기 식으로 새롭고 발전적인것들을 창조하고있다. 세계적으로 좋은것, 앞선것은 자기 식으로 발전시켜 자기의것으로 만들며 내내와 내대를 뛰어넘어 비약하고있는 것이 이 나라 인민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창조본때이다.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최첨단을 돌파하며 21세기의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자력갱생의 신념,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유산을 빛내이며 민족의 향취가 넘쳐나는 선진문화를 창조해나가려는 민족적자존심은 전제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다. 공화국이 걸어온 지난 65년상은 주체성과 민족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부강조국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라는것을 력사의 진리로 확증하고 있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는데 민족대대의 자주적존엄과 번영이 되는것을 자기의 운명과 생활을 통해 페부로 절감하고있다.

권한숙



가슴깊이 새겨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애국의 현신임을 | 장산혁명사적지에서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 통일, 평화변영을 이룩해나 가자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 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저항시키려나아가야 한다.

민족우선의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조국통일의 주제는 조선민족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대하는 자세를 가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같고라니 민족의 혈액을 다시 갈고라니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

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우선의 립장을 견지하는것은 당연하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은 근 70년세월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 분렬과 대결속에 산다는것은 민족적 수치이고 비극이다. 진정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민족우선의 립장에 철저히 서야 한다.

민족중시의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말그대로 외세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중시하며 외세의 리익보다 자기 민

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시 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실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 문제에서 자주적대와 민족우선, 민족중시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며 외세의 그 어떤 압력이나 공갈에도 굴함없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것은 민족중시립장의 발현으로 된다.

어느 민족이든지 민족중시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수호할 수 있고 자기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민족중시는 외세에 의하여 분렬과 대결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겨레가 견지해야 할 기본립장이며 좌우명이다.

그 어느 외세도, 그 어떤 리념도 민족의 리익보다 앞설수 없다.

민족단합의 립장을 견지한다는것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뭉친다는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은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남 사람과 더불어 사는것이 우리의 리익이다. 사상과 리념, 제도과 당파, 소속의 차이는 있을수 있어도 우리 겨레의 애국의 마음은 하나이며 그에 의거하여 얼마든지 민족단합을 이룩할수

있다.

지난 16일부터 개성공업지구가 시운전을 거쳐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되고 오는 25일부터 금강산에서 출렁이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뭉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전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어넘어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할 때 조국통일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

최근 북과 남사이에는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와 흡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이 합의되어 리행 단계에 들어섰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주변나라들도 북남관계에서 마련된 이러한 긍정적조치들을 적극 지지 환영하고있다. 내외가 다 인정하는바와 같이 이 팔목한 한 성과들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이룩해나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긍정적노력이 깃들었다.

올해초만 하여도 공화국에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방대한 무력과 첨단전투수단들을 총동원한 미국과 추종세력의 전쟁책동으로 인해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점경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공화국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의 리익을 우선시하는 립장에서 통이 크고 야망있는

조치들을 취했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의 성의와 야망을 《진정성의심》스럼다스니, 《남남갈등을 유발》한다스니, 《당국회담회》니 하는 열로탕요한 말들로 부정부조각과 모독할 때 공화국은 북남관계를 중시하고 민족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는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대하고 처리했다.

지난 6월 북측이 특별대화문을 통해 계의하였던 북남당국회담이 그 무슨 《격》과 《급》문제를 들고나온 남조선당국에 의해 무산되었을 때에도 공화국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개성공업지구기업가들의 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북남당국실무회담을 마련하였다.

무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회담에서 공화국은 최대한의 야망을 발휘하여 남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서 수정안들을 제기하고 협의를 거듭하였다. 6차회담에서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자체가 결렬될뻔했던 위기도 공화국의 야망과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극복되었고 끝내는 극적인 타격을 이룰수 있었다는것은 남조선 각계도 한결같이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정확준

공동변영의 동음을 힘차게

지난 16일 개성공업지구 정상가동을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다. 이로써 민족경제협력의 동음이 다시 세계 울리게 되었다.

지금 온 겨레가 이에 대해 기뻐하면서 그것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있다.

완전폐쇄나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개성공업지구가 오늘날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것은 북과 남이 오랜 대결을 넘어 화해의 길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다.

다 아는것처럼 개성공업지

구는 2000년 6월 북남수뇌상봉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태어난 《6.15의 옥동자》이다.

착공시작도 민족공동의 리익, 민족공동의 발전과 변영을 위해서였고 착공이후에도 10년세월 그것을 지향하여 줄달음쳐온 개성공업지구이다.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강도도 마음도 하나된 길 원하는 겨레의 소원을 담

아 일떠선 개성공업지구는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공화국은 북남협력과 민족경제의 통일적인 발전을 위해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요충지역을 대범하게 내주는 용단을 내리었다.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운영하는 개성공업지구는 단순히 북남경제협력사업뿐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단

합, 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해왔다.

지구상에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업지구, 경제특구들이 많지만 개성공업지구처럼 분렬된 나라에서 민족끼리 힘을 모아 돌아가는 공업지구는 없다.

현실상 북과 남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뜻과 마음을 합칠 때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날도

앞당겨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화해와 단합, 공동변영과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해나간다면 공동변영의 동음은 더욱 힘차게 울릴것이다.

북과 남은 온 겨레의 기대에 맞게 개성공업지구를 잘 운영해나감으로써 그것이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여 시국선언 발표

남조선과 해외의 100여개 단체와 600여명의 인사들이 11일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운동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현 집권세력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남북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주장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보안법》에 걸어서 탄압하고 지어 《중복》, 《맹쟁이》라는 딱지를 붙여 잡아가두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면서 남북공동선언리행,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중지를 비롯한 각계층의 요구를 《리직》으로 몰아 탄압하는 사건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벌어지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소동은 통일운동단체와 인사들에 대한 《보안법》형의 탄압공포가 더욱 확대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일체의 《치안유지법》을

모략사건조작의 능수 정보원해체를 요구

남조선의 시민권행동 장년모임이 11일 《내란음모 조작하는 정보원은 죽자 해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 8월 28일 정보원이 이른바 내란음모죄에 걸려 야당인 통합진보당의 원과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들을 강제수색하고 3명을 긴급체포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정보원이 들고나온 야당의 내란음모죄에 대한 증거라는것은 완전히 무근거한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시기 독재권력에 의해 조작된 각종 《간첩단사건》, 《내란음모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무죄로 밝혀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보원의 의도는 부당한 선거개입과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로 궁지에 몰린 불리한 정세국면을 전환하기 위한데 있다고 까밝혔다.

더 나아가 남과 북의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를 파탄시켜 보수집권세력의 명줄을 이어가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폭로하였다.

지금 각계각층이 선언발표, 시국통성을 비롯한 본격적인 활동으로 악법제지, 음모조작중지, 정보원사태해결을 요구해나가고있다고 밝혔다.

각 정당과 사회단체, 국민들이 정보원과 보수집권세력의 탄압에 맞서 힘차게 싸워나가기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위기회복을 시도하는 정보원은 죽자 해체하라!

21세기에 광란의 마녀사냥 원흉인가, 공안탄압 분쇄하자!

량심세력 힘을 합쳐 공안탄압 분쇄하라!

부정, 불법 선거개입으로 민주를 유린하는 정보원은

해체하라!

남조선의 민주로동이 10일 단체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모략적인 사건조작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정보원이 저들의 선거개입외행을 은폐하려고 야당을 대상으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단죄하였다.

그 화살은 결국 민주화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로동계에도 향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내란음모사건》이 야당만이 아니라 전체 진보세력에 위기를 불러올수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고 도로하였다.

사상과 량심의 자유를 짓밟는 권력의 탄압을 결코 면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로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를 위해 생존권투쟁과 함께 공안세력의 탄압을

반대하는 투쟁에도 단호히 나선것이라고 연명하였다.

그들은 《보안법》제지와 사회제재개혁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당국의 사건조작책동을 규탄하고 파쇼악법제지를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선언이 랑독되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동안 민주로동성원들은 《보안법 제지하고 공안탄압 분쇄하라!》 등의 구호들을 웨쳤다.

본사기자

남조선과 해외의 100여개 단체와 600여명의 인사들이 11일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운동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현 집권세력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남북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주장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보안법》에 걸어서 탄압하고 지어 《중복》, 《맹쟁이》라는 딱지를 붙여 잡아가두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일체의 《치안유지법》을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인물들이 전례없이 많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독판기대를 하면서 반민적이며 반복해결적인 악법조작에 혈안이 되어 날뛰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그들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인물들이 전례없이 많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독판기대를 하면서 반민적이며 반복해결적인 악법조작에 혈안이 되어 날뛰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그들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인물들이 전례없이 많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독판기대를 하면서 반민적이며 반복해결적인 악법조작에 혈안이 되어 날뛰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그들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



내란음모 조작하는 정보원을 규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내란음모사건》조작의 위험성을 경고

남조선의 통합진보당 대표 리정희가 13일 서울의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최근 정보원이 조작한 《내란음모사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의 원과 성원들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한것은 또 하나의 쿠데타라고 단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정보원의 선거개입행위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조분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그 본질적목적은 정치적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정보기관을 리용하여 독재체제를 만드는데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진보적인 민주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중복》소동과 백색테러가 벌어지고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통일에국세력말살을 노린 탄압소동

수집권세력은 통합진보당을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었다. 그들이 최근년간 광란적으로 벌여오고있는 《중복세력척결》소동의 주되는 창끝이 통합진보당에 들러지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들은 보수인물들을 총동원하여 통합진보당을 《중복》으로 몰아 못해 이 당소속의 《국회》의원들을 《친북파》, 《주사파맹쟁이》로 몰아대면서 그들의 《국회》진출을 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있는

이런 사태를 통해 《내란음모사건》이 야당만이 아니라 전체 진보세력에 위기를 불러올수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고 도로하였다.

사상과 량심의 자유를 짓밟는 권력의 탄압을 결코 면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로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를 위해 생존권투쟁과 함께 공안세력의 탄압을

《국회》의원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인물들이 전례없이 많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회》의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 독판기대를 하면서 반민적이며 반복해결적인 악법조작에 혈안이 되어 날뛰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그들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

야당에 대해서도 《중복비호세력》으로 몰아대며 음모적으로 압력을 가해나서고있다.

이러한 탄압소동들은 6.15지시세력, 통일에국세력을 북과 억지로 련결시켜서라도 《중복》으로 몰아 말살하고 련북동일분위기가 높아가는데 막으며 남조선사회진반에 살벌한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하려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유신시대에 세컨드 용공조작극의 재연》, 《내란음모, 용공조작 국정원해체》, 《이것은 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집권위기모면을 위한 파쇼적폭거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당국이 또 하나의 모략사건조작에 광분하고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동》을 성원 9명을 약명놀은 《보안법》에 걸려 불구속판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파쇼경찰은 지난 4월 29일 단체성원들의 집과 사무실을 강제수색하고 조사놀음을 벌

려오다가 끝내 이러한 폭압조치를 취하였다.

당국은 그들에게 《련방제 통일조국건설, 미군철수 등 북의 대남투쟁토선을 추종하는 단체》를 결성하였으며 《해마다 북의 공동사실을 투쟁과업으로 채택하고 리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였다.》는 혐의까지 들쭉였다.

지금 현 보수당국은 단체가 《한총련》 출신들로 꾸

려진 조직으로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하고있다고 몰아대며 또 하나의 반공화국모략사건을 조작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세력이 극도의 정치적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소동을 규탄하는 해외동포들

대 세 에 어 울 리 지 않 는 행 동

물 의 불 빛 는 격 하 교 과 서 외 국 행 의

지금 북한관계는 좋은 전전을 보이고있다.

개성공업지구도 정상화의 궤도에 들어서고 금강산에서는 며칠후에 휴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진행된다.

얼마전 평양에서 열린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같이 참가하여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펼치는것을 보면서들은 겨레는 민족의 동질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통일일기를 드물었다.

신뢰를 쌓아 화해와 협력을 공고히 하면 민족의 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관계개선을 위한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려는 세력이 있다는것은 매우 유감스러운것이다.

바로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이다.

지난 9월 15일 남조선에서

는 1950년 조선전쟁당시의 《인전상륙작전》을 재현하는 《행사》라는것이 국방부의 주관하에 벌어졌다.

미해병대병력과 무장장비까지 동원된 《행사》의 목적이 남조선인민들속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고 미국에 대한 사대를 부추기며 북침전쟁을 찬미하려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또 그런 놀음이 수년만에 비로소 온기가 돌기 시작한 북한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된다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쟁시기의 전투장면들을 재현하는 놀음이 지금 이 시기에 계속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끝없는 적대감의 산물이고 화해가 아니라 전쟁을 추구하는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그 《행사》라는데서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한

말은 용납할수 없기 위해로 운것이었다.

《북이 (중북세력)과 연계해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전쟁)을 획책한다.》느니, 《북이 현재 전술적대화공세를 하고있을수 있다.》느니 그의 발언에는 동족대결의 광기가 번득이고있다. 그 며칠전에도 김관진은 《북의 핵,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대화와 협력을 권하고있는데 이젠 북과 남은 그 성과를 공고히 하여 대화와 협상의 폭도 넓히고 점차 화해와 독립, 통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전전의 장태로 되는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이기도 하지만 민족내부의 쿠유사대세력의 책동이기도 하다.

미국이라면 상순들어 한

남조선의 군부세력에게 묻진도 북한관계개선이 그렇게도 달갑지 않은가.

북과 남이 개성공업지구문제나 휴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에 합의하고 결실을 본데 대해서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전쟁직전이라는 숨막힐듯 팽팽했던 북한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되고있는것은 큰 진전이고 이제 북과 남은 그 성과를 공고히 하여 대화와 협상의 폭도 넓히고 점차 화해와 독립, 통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전전의 장태로 되는데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이기도 하지만 민족내부의 쿠유사대세력의 책동이기도 하다.

미국이라면 상순들어 한

영하면서도 북이라든 한사코 도리머리를 짓는자들, 입만 열리면 대결을 부르짖는자들,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설 때마다 《북위협》과 《도발》설로 긴장각화를 가져오는자들이 남조선에서 활개치고있기에 민족의 통일위업이 그만큼 시련을 겪고있다.

《인천상륙작전》재현이나 군부세력의 호전적 발언 등은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반하고 역행하는 불망나니행동이다.

이국의 말을 쓰고 미국을 일삼고 민족을 위한다며 사대에 빠져있던 매국노들은 결코 과거에만 존재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달아오른 동족대결열기, 전쟁열기를 식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 학자들이 집필한 력사교과서가 심히 축소, 외국된것으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 논란거리로 되고있다.

남조선 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보수 학자들은 이련의 력사교과서에 일제강점시기 일본군의 성노예범죄를 이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짤막하게 축소, 외국하는 한편 친일분자들의 죄악은 미화하고 합리화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일제에 협력한 부패한 친일분자들을 마치 민족자본으로써 일 본자본과 경쟁했던 것처럼 묘사하였고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화가 나라의 근대화에 이바지하고 발전된것으로 외국하였다.

제주 4.3인민봉기, 5.18광주인민봉기를 비롯한 남 조선의 민주화를 위한 력사적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 나라의 절반학을 외세에게 그대 로 팔아먹은 리승만이나 김성수, 백선엽과 같은 매국노들과 군사독재정권의 죄악은 은폐, 외국하고 모든 당반부에 율 놓아주고 그 무슨 《수호》니 튀니 하며 찬미하기만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극악한 동족대결로 북남판 계를 수립할수 없는 최악의 상대로 만들고 남조선인생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전 리 명박 《정권》에 대하여서는 그 무슨 《안보》를 강화하고 위기속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킨것으로 추켜올리는것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내용 까지 담고있다.

이렇게 외국된 력사교과서들이 교재로 리용될 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또 남조선사회를 어디로 떠밀겠는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력사의 진실성을 괴곡하는 어용학자들의 잘못된 력사관에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맞장구를 칠으로써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4일 《새누리당》의원 100여명은 《근현대사연 연구실》이라는 모임의 첫 회의에서 교과서론사건을 《좌파와의 력사전쟁》으로 돌아가며 《오늘 시작하는 력사교과서서 력사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해 좌파와의 력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느니 튀니 하며 친미 친일로 장식된 력사교과서를 변호하는 망언들을 서슴없이 늘어놓았다.

남조선에서 보수당과 어용학자들의 력사교과서외국책들은 비단 오늘날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지난 2008년 11월에도 어용학자들은 보수당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속에 《분단의 책임을 미워하거나 남조선 (정부) 수렴으로 들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는 억지주장을 내세우며 어느 한 출판사의 근현대사교과서를 수정하도록 강박하다 못해 법에 고소하는 놀음까지 벌였다. 그런가하면 리명박 《정권》은 어용학자들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근대문명에로의 과정》으로 찬미하고 제주도 인민들의 의로운 4.3인민봉기를 《좌파세력반란》으로 모독하는 등의 궤변들로 일관된 력사교과서라는것을 주장목인하여주었다.

이 모든것은 이친 독재자들이 이적인 친미친일사대와 좌파행위를 합리화하고 사회를 더욱 보수화하여 자기집권의 발판을 닦으려는 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정선대문제대책회의 (정대협)와 많은 언론, 진보단체들이 《교과서의 내용은 실로 부끄러울 지경이다.》, 《리승만, 박정희를 미화한 반민족, 독재미화교과서, 친일인사의 반민족행위를 축소 서술한 반민족, 친일친양교과서》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아마직접 학생들에게 력사를 직접 가르치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7 800여명이 친일, 독재미화교과서로 알려진 력사교과서의 결정추소를 요구하며 1차교사선언에 나섰다.

인민들은 력사의 공정한 심판관이며 력사의 진실은 그 무엇보다도 가리우거나 외국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력사교과서를 둘러싼 진실과 허위, 애국과 매국사이의 갈등과 대결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것으로 예견된다.

본사기자 리광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최근 우리를 끌고 도발적말발을 거듭 내뱉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18일 보도 제 1041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피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역도가 북남관계발전예 제동을 걸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태롭게 하는 호전적말발을 계속 늘어놓으며 도발적으로 나오고있다.

역도는 지난 15일 인천에서 열린 그 무슨 《국방정책설명회》라는데서 《북은 중북세력과 연계하여 싸이 버전, 미디어전, 테로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이른바 4세대전쟁을 획책》하고있다고 떠들면서 보수패당이 조작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사건을 그 준비로 붙수 있다고 떠벌였다. 그런가 하면 북한관계개선과 관련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대해 시비질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대화공세》라고 협담을 늘어놓았다.

이에 앞서 역도는 피뢰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와 진군지휘관회의, 《서울 국제군사심포지움》이라는데서도 《북의 핵을 용인할수 없다.》느니, 《대화가 진행될 때에도 북이 도발한 실례가 있다.》느니, 《북은 핵과 미사일, 도발위협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느니 튀니 하고 악담질을 하였다.

이것은 반공화국적대감이 필수에 배인 역도의 대결본색을 다시금 날달이 드러낸 것으로서 북한관계개선과 긴장완화로 나가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있는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우렁이고 용

남 못할 도전이다.

김관진역도로 말하면 미국의 대아시아비전략실현의 하수인, 피뢰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북침전쟁광기를 고취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에 최악의 전쟁위기를 조성해온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 호전강제이다.

역도는 미국상전과 보수패당으로부터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부권 호전적광기를 인정받아 피뢰국방부 장관자리에 들어앉자마자 《단호한 응징》이니, 《도발원점에 대한 타격》이니 하고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며 반공화국도발소동을 미친듯이 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이 동족의 선의와 야량, 대화와 평화의지를 비방중상하고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는 김관진과 같

레의 치수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결국 김관진역도가 최근 우리를 끌고 도발적말발을 거듭 내뱉고있는것은 북한관계에서 새로운 대화투쟁이 열리는데 속이 뒤틀러 완화에 길에 들어선 조선반도정세를 어떻게하나 긴장과 대결으로 되돌려보려는데 그 흉악한 속심이 있는것이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김관진역도와 같은 악질대결광신자들이 날치고있는 한 북남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거나갈수 없고 조 선반도의 정세는 더욱 악화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이 동족의 선의와 야량, 대화와 평화의지를 비방중상하고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는 김관진과 같

은 역도를 끼고돌면서 《한반도신프로세스》를 떠드는것은 위선과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허위와 기만으로 밖에 달리는 불수 없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이 김관진역도를 피뢰국방부 장관으로 류임시켰을 때 온 민족이 화를 입게 했을것이라는 데 대해 경고하였다.

북남관계에서의 새로운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재양을 몰아오는 김관진역도와 같은 시대의 오물들을 하루빨리 제거해버려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것이지만 우리의 존엄을 우롱하며 도발적으로 나오는 역적무리들을 결단코 용서치 않을것이다.

대세에 역행하여 분별없이 날뛰는자들은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선거개입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의 한강에 설치되어있는 마포다리간에는 《암겟도 아니요, 고인같은것》이라는 간판과 함께 한 남성이 고인하는 동상이 세워져있다. 그런가하면 중간에는 《한반만 더》라는 구호가 새겨져있다.

고인하는 동상은 무엇보다 그곳에 세워져있고 《한반만 더》라는 구호는 거기서 경치를 둘러보라고 써놓았는지.

그러나 따져 보면 고인하다 자살을 하지 말라는 동상이고 자살하기전 한반만 더 생각해보라고 써붙인 구호이다.

마포다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였으면 이런 동상과 구호를 내걸었겠는가.

현실적으로 남조선에서 마포다리는 자살장소로 유명하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강에 있는 다리들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수가 102명인데 그중 35%에 해당하는

남조선의 종교인들이 11일 서울에서 시국기도회를 가지고 선거개입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들은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은 과거 독재시기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난하였다.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보원이 장대로 뒤매 개혁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교인들이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을 밝혀 관련자처벌과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에 맞서 투쟁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다.

남조선의 카톨릭교 광주대교구가 12일 서울에서 시국미사를 가지고 정보원의 선

그 밀바탕에는 극도의 생활난, 삶과 미래에 대한 비판적 불행과 고통만 감수하는 사회에 대한 저주가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390만명의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헤매고있으며 수백만명의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하루하루를 불안속에 살고있다.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섰다.

인민들의 소득은 나날이 줄어돌고 가정세대들이 진 빛은 년평균 소득의 1.7배이상에 이르르고있다.

남조선에서 주민 1인당 년간세금은 5 200US\$에 달하고있으며 물가상승률은 1998년의 《외환위기》이후 최고수치를 기록하고있다.

대학졸업생의 등용문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뛰어들어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집과 가산을 저당잡히고 빚을 지다 못해 부모들이 목숨을 끊고 베풀어 주는 길은 잃은 학생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

성증삼

선거개입사건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정보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였다.

현 당국자가 정보원, 경찰, 《새누리당》을 처벌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보원을 개혁하고 민주화를 쟁취할 때까지 서로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해나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과 남부수뇌상봉당화특공개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실시, 현 집권자의 사과와 정보원의 개혁, 보수언론의 불공정 보도 중지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 20일은 낱강도 일제가 《운양》호사건을 일으킨 때로부터 138년이 되는 날이다.

《운양》호사건은 과거 일본이 가장 과격치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극악무도한 사건이었다.

19세기 후반기 후진자본주의 국가로 등장한 일본은 조선정복고리인 《정환론》을 부르짖으면서 그 실현에 달라붙었다.

그 첫공정으로 일본은 1875년 5월 군함 《운양》호를 부산에 불법침입시켰다. 그리고는 뺨뻍스럽게도 이것이 《정기적인 연습항해》라고 정당화해나섰으며 이후 그 무슨 《발포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위세를 떨구었다.

이렇게 하면 조선이 저들의 힘앞에 위압되어 스스로 굴복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하지만 조선봉건정부는 일본이 기대해대로 순순히 굽어들러 하지 않았다.

일 지행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일본은 보다 본격적인 무력간섭을 단행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해 9월 일본은

참가자들은 정보원해체를 요구하여 시위행진을 벌였다.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13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한 현 집권자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선언은 정보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날조한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선언은 현 집권자가 정보원 사태를 위면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참가자들은 정보원해체를 요구하여 시위행진을 벌였다.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13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한 현 집권자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선언은 정보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날조한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선언은 현 집권자가 정보원 사태를 위면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단평 정보원의 《장례식》

얼마전 남조선에서 특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민권련대와 시민들로 구성된 《국정원 국민감시단》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앞에서 정보원해체를 상징하는 《정보원장례식》을 진행하였던것이다. 이날 감시단원들과 시민들은 상복차림에 《민주주의수호, 국정원 전면개혁》 등의 문구가 적힌 상여를 들고 《수많은 조작과 날조 끝에 내란음모사건이 터진 지난달 28일부터 사망한 정보원의 장례식을 치러주자.》면서 《정보원관》을 상징하는 합을 천과 흙으로 덮는 하관식을 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그들은 운구행렬을 뜻하는 의미에서 정보원근처에 둘러 집회를 열고 정보원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조선에서 사람들은 혐오하는 인간이나 기관, 단체들에 대해 불신과 분노의 표현으로 화형식을 진행한다. 이렇게 놓고보면 일반장례식의 형식과 틀을 그대로 갖춘 이번 정보원의 《장례식》은 그 야말로 류타른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사람도 아닌 정보원을 그것도 지금 시퍼렇게 독을 쓰는 독재기관에 대한 《장례식》을 하였으니 이는 곧 민심의 반영이다.

정치계입으로 남조선정치를 일대 혼란으로 몰아간 정보원은 지금 각계의 비난과 규탄속에 해체위기에 처해있고 벗어나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있다. 그 무슨 《내란음모》의 미명하에 서울부터 《보안법》을 휘두르며 정적과 진보정치세력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는 최근 정보원의 행적이 이에 대한 실례이다.

진세를 휘두르는 정승도 관에 묻히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지금 정보원이 아무리 날뛰어도 민심은 정보원을 이미 관속에 물어버렸다. 관속에 묻혀버린 정보원이 살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김용철

참가자들은 정보원해체를 요구하여 시위행진을 벌였다.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13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한 현 집권자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선언은 정보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날조한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선언은 현 집권자가 정보원 사태를 위면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참가자들은 정보원해체를 요구하여 시위행진을 벌였다.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13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과 관련한 현 집권자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선언은 정보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날조한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선언은 현 집권자가 정보원 사태를 위면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국정원 상주 위로하는 장례추아노제

덮어버릴수 없는 과거죄악

다치는대로 학살하는 귀족같은 민행을 감행하였다.

일본이 침략선 《운양》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것은 조선봉건정부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불평등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예속시킬수 있는 이른바 《법적근거》를 마련해놓자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로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무력으로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한 끝에 1876년 2월 27일 강화부에서 저들의 강도적요구가 담긴 12개 조항으로 된 이른바 《강화도조약》이라고 불리우는 《조일수호조규》를 강압적으로 조작하였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일본은 공사 및 력사주둔권, 치외법권, 자유무역권, 연해측량권 등 정치, 경제, 군사적 모든

면에서 직접 조선에 침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나라는 식민지에게속하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운양》호사건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조약》에 의해 그 무슨 조선의 《자주독립》이 보충되었다느니, 《일본은 왜국조선의 한 모퉁이에 개국의 서방을 비쳐주었다.》느니, 《조선은 처음으로 일본의 손에 끌려 세계를 알게 되었다.》느니 튀니 하는 확당무거운 궤변으로 저들의 침략행위를 위곡, 미화보석하였다.

일본은 오늘도 자기들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있다. 지금 일본은 해외팽창야망에 떠러 사회에 군국주의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조선척척의 칼을 날카롭게 버리고 있다.

민약 일본이 패망의 교훈을 망각하고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한다면 일본에 대한 뿌리깊은 원한을 안고있는 우리 민족은 친백제의 보복으로 침략자들을 단호히 요정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면에서 직접 조선에 침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나라는 식민지에게속하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운양》호사건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조약》에 의해 그 무슨 조선의 《자주독립》이 보충되었다느니, 《일본은 왜국조선의 한 모퉁이에 개국의 서방을 비쳐주었다.》느니, 《조선은 처음으로 일본의 손에 끌려 세계를 알게 되었다.》느니 튀니 하는 확당무거운 궤변으로 저들의 침략행위를 위곡, 미화보석하였다.

일본은 오늘도 자기들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있다. 지금 일본은 해외팽창야망에 떠러 사회에 군국주의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조선척척의 칼을 날카롭게 버리고 있다.

민약 일본이 패망의 교훈을 망각하고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한다면 일본에 대한 뿌리깊은 원한을 안고있는 우리 민족은 친백제의 보복으로 침략자들을 단호히 요정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은하과학자거리에 넘치는 기쁨

요즘 배스를 타고, 길을 거닐어도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는 것은 은하과학자거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 7개월 동안에 하나의 거리가 일떠선 것도 놀라지만 살림집들과 탁아소, 유치원, 상점을 비롯한 모든 건물이 얼마나 손색이 없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신 소식은 또다시 이 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얼마전에는 훌륭히 일떠선 이 거리에 과학자들이 새집들이를 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 누구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이렇게 말한다.

정교하게 실현된 원림특화수준 또한 높다. 그뿐이 아니다. 3칸, 4칸, 5칸짜리 살림집들에는 공동살림방을 비롯해서 부도방, 자식방 그리고 특색있는 구조의 부엌 등이 배치되어있고 침대, 찬장, 신발장 등 10여종의 현대적인 가구들과 겨울철 온도보장을 위한 난방설비들이 그쁘고 갖추어져 있다. 이렇듯 훌륭한 거리에서 과학자들이 살고 있다. 그 어느 집문을 열어도 바다 새 집을 받아안은 과학자들과 가족들의 기쁨과 감격이 차넘치고 있다. 그들 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을



《과학기술성공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한 과학자들을 내세워주는 공화국의 정책이 제일이다.》

은하과학자거리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하게 건설된 거리이다. 총 28층에 달하는 부지면적에 1000여세대에 달하는 21개 호동의 현대적인 다층살림집들이며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각종 봉사시설들...

이렇듯 훌륭한 거리에서 과학자들이 살고 있다. 그 어느 집문을 열어도 바다 새 집을 받아안은 과학자들과 가족들의 기쁨과 감격이 차넘치고 있다. 그들 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을

받아안은 영웅로과학자도 있고 아버지과 아들, 딸이 한 날한시에 새 집을 받은 과학자가정, 과학자부부도 있다. 그들모두의 얼굴마다에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정이 넘쳐나고 있다. 그들모두의 얼굴마다에는

머지않아 완공될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의 주인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전체 과학자들을 크나큰 감격과 격정에 휩싸이게 하고있으며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새 거리의 길이방향으로 시원하게 뻗어나간 문헌식도로들과 립체감이 나게 들어앉은 살림집들을 비롯한 건물들사이의 공간에 체육과 문화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게 꾸려진 16개의 다기능, 다목적공간들은 또 얼마나 멋있는가. 아담하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고 앞으로 과학교육부문 일꾼들을 위한 살림집과 휴양소를 일떠세우는것을 추진실분야에서 주타격방향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은 은하과학자거리에 보금자리를 편 과학자들은 물론

국적도입은 인민들에게 배풀어지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또 하나의 크나큰 혜택이다. 세상은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보건발전이 중요시되고있지만 공화국에서처럼 국가의 깊은 관심속에 전체 인민이 무상으로 첨단의료봉사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새로운 먼거리수술지원체계가 개발되어 전국의 도, 시(구역), 군인민병원들에 도입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 수술지원체계가 환자들보다 훌륭한 외과적의료봉사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많은 나라들

에서 펼쳐지고있는 자랑찬 현실이다. 먼거리수술지원체계가 개발도입됨으로써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환자들과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협의 및 진단, 상담 및 교육용 기본으로 하던 먼거리의료봉

장에서 직접 지도를 받는 수술집도자와 보조성원들에게 해당 병원의 외과의사들이 먼거리의료봉사에서 수술과정을 동시에 시청하면서 상담할수 있으므로 보다 훌륭한 교육환경이 마련되게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야 받을수 있는 첨단의료봉사를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실시하고있는 현실을 목격한 외국사람들은 인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조선의 보건제도가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새로운 먼거리수술지원체계 개발

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먼거리협진단체계가 세워진데 이어 새로운 먼거리수술지원체계가 개발되어 반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중앙병원들과 전국의 도, 시(구역), 군인민병원들에 도입된것은 국가의 유일적지도에 완전히 전방적인 무상치료가 실시되는 공화

국의 리용분야가 보다 확대되게 되였다.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통해 조국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위치한 군인민병원들에 이르기까지 직접 수술지도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마련되어 지방병원들에서도 중앙병원의 리용하는 의료진을 보내 신속히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수술

의 리용분야가 보다 확대되게 되였다.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통해 조국의 최북단과 최남단에 위치한 군인민병원들에 이르기까지 직접 수술지도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마련되어 지방병원들에서도 중앙병원의 리용하는 의료진을 보내 신속히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수술

새로운 먼거리수술지원체계도입과 함께 김남일병원과 평양산림본안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의과학원 중앙연구소도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과 질적수준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다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먼거리수술지원체계의 진

행은 인민들에게 배풀어지는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또 하나의 크나큰 혜택이다. 세상은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보건발전이 중요시되고있지만 공화국에서처럼 국가의 깊은 관심속에 전체 인민이 무상으로 첨단의료봉사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야 받을수 있는 첨단의료봉사를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실시하고있는 현실을 목격한 외국사람들은 인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조선의 보건제도가 정말 훌륭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머리받기명수》, 《득점왕》, 이것은 처녀시절 중앙공격수였던 리금숙에게 붙여진 세계여자축구의 호칭이다.

여러차례에 걸쳐 아시아축구연맹 년간최우수, 우수선수상,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최고득점상, 세계여자축구명수리프 공격수로 선정되였던 인민체육인 리금숙, 그는 오늘도 경기장을 달리

고있다. 파이란 잔디밭이 펼쳐진 축구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지대로 여념이 없는 리금숙(35살)감독은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머리받기명수》, 《득점왕》, 이것은 처녀시절 중앙공격수였던 리금숙에게 붙여진 세계여자축구의 호칭이다. 여러차례에 걸쳐 아시아축구연맹 년간최우수, 우수선수상,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최고득점상, 세계여자축구명수리프 공격수로 선정되였던 인민체육인 리금숙, 그는 오늘도 경기장을 달리

고있다. 파이란 잔디밭이 펼쳐진 축구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지대로 여념이 없는 리금숙(35살)감독은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머리받기명수》, 《득점왕》, 이것은 처녀시절 중앙공격수였던 리금숙에게 붙여진 세계여자축구의 호칭이다. 여러차례에 걸쳐 아시아축구연맹 년간최우수, 우수선수상,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최고득점상, 세계여자축구명수리프 공격수로 선정되였던 인민체육인 리금숙, 그는 오늘도 경기장을 달리

고있다. 파이란 잔디밭이 펼쳐진 축구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지대로 여념이 없는 리금숙(35살)감독은 《통일신보》 기자가 만났다.

《머리받기명수》, 《득점왕》, 이것은 처녀시절 중앙공격수였던 리금숙에게 붙여진 세계여자축구의 호칭이다. 여러차례에 걸쳐 아시아축구연맹 년간최우수, 우수선수상,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최고득점상, 세계여자축구명수리프 공격수로 선정되였던 인민체육인 리금숙, 그는 오늘도 경기장을 달리

함흥소녀가 축구명수로

가쁜 얼굴에 열정을 발산하는 눈빛, 큰 키와 단단한 체격, 세계여자축구무대를 종횡무진했던 리금숙의 모습은 여전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헌신함이라고 할가. 바쁜 훈련일정의 짬을 틈타 마련한 자리라 만나자 바로 질문했다. -축구를 하게 된 동기는? 《특별한 동기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체육선수출신이다보니 어려서부터 체육을 좋아했다.》 리금숙은 함경남도 함흥시 사로구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들은 한때 함흥시적으로 소문난 공장체육팀의 톱주장들이었다고 한다. 중학시절 썩 빠진 키와 몸매를 탐내어 무용소조, 손공금소조를 비롯한 예능소조에서 그를 데려가곤 하였지만 며칠후에는 학교운동장에 나타날 정도로 지독한 축구소녀가 리금숙이었다. 13살 나던 해 그는 소망대

로 함흥시청소년체육학교 축구소조에 망라되어 축구선수로서 첫발을 뒀다. 뛰어난 공다루기기술을 소유한 그는 몇년후 국가종합립선수로 선발되였다. -머리받기가 특기라던데 득점포리는 무엇인지... 《사람들은 경기때마다 득점을 하는 나를 두고 운수가 좋다고들 말한다. 상대방편 끝문대앞에서 몸의 어느 부위에 공이 맞든지 팔로 받거나 발로 받거나... 그러나 득점 그 자체는 훈련의 결과이다.》 무슨 일에서나 노력이 없는 열매는 바랄수 없듯이 퍼라는 훈련이 없이 성공을 기대할수 없다. 당시 국가종합립 여자축구 1조에서 제일 나 어린 선수 리금숙이었다. 7~8년 이상의 언니들에 비해 체력이 따라가지 못했던 그는 남들보다 몇배나 힘든 육체적 부담을 이겨내야 했다. 그러나 코피까지 쏟으며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훈련을 거듭하였

빠른 속도를 배향한 그의 뛰어난 득점감과 문전결속능력, 머리받기기술은 이렇듯 열렬한 조국애와 피라는 노력, 불같은 열정이 낳은 결과였다. 하기에 리금숙은 3차례의 세계여자월드컵경기대회와 6차례의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3차례의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 등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세계일류급의 기술을 소유한 명수》, 《세계축구선수들의 본보기》로 명성을 떨칠수 있었다. 축구로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데 크게 기여한 리금숙선수, 자기의 성공위에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찾아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의 품이 있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일생토록 그 나날들을 잊을수가 없을것 같다.》 국제경기가 끝난 후 물려드는 기자들앞에서 리금숙은 《축구는 일개인이 아니라 팀전체의 실력에 의거해서 하는것이다. 내가 선수생활에서 거둔 모든 성과는 선수들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한것이다.》 라고 하였다며 선수생활기간 그의 돌도 없는 친구였던 인민체육인은 말한다. -취미는 무엇인가. 《책읽기를 즐겨한다.》 알고보니 리금숙은 보기 드문 독학가였다. 훈련과 경기로 이어진 선수생활기간에

도 짬만 있으면 손에 책을 들곤 한 그였다. 배움에 대한 그의 지향 또한 축구에 대한 정열 못지 않았다. 선수생활을 그만둔후에도 그는 짬짬히 체육과 학기술은 물론 외국어를 익히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속에서도 리금숙은

가쁜 얼굴에 열정을 발산하는 눈빛, 큰 키와 단단한 체격, 세계여자축구무대를 종횡무진했던 리금숙의 모습은 여전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헌신함이라고 할가. 바쁜 훈련일정의 짬을 틈타 마련한 자리라 만나자 바로 질문했다. -축구를 하게 된 동기는? 《특별한 동기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체육선수출신이다보니 어려서부터 체육을 좋아했다.》 리금숙은 함경남도 함흥시 사로구역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들은 한때 함흥시적으로 소문난 공장체육팀의 톱주장들이었다고 한다. 중학시절 썩 빠진 키와 몸매를 탐내어 무용소조, 손공금소조를 비롯한 예능소조에서 그를 데려가곤 하였지만 며칠후에는 학교운동장에 나타날 정도로 지독한 축구소녀가 리금숙이었다. 13살 나던 해 그는 소망대

로 함흥시청소년체육학교 축구소조에 망라되어 축구선수로서 첫발을 뒀다. 뛰어난 공다루기기술을 소유한 그는 몇년후 국가종합립선수로 선발되였다. -머리받기가 특기라던데 득점포리는 무엇인지... 《사람들은 경기때마다 득점을 하는 나를 두고 운수가 좋다고들 말한다. 상대방편 끝문대앞에서 몸의 어느 부위에 공이 맞든지 팔로 받거나 발로 받거나... 그러나 득점 그 자체는 훈련의 결과이다.》 무슨 일에서나 노력이 없는 열매는 바랄수 없듯이 퍼라는 훈련이 없이 성공을 기대할수 없다. 당시 국가종합립 여자축구 1조에서 제일 나 어린 선수 리금숙이었다. 7~8년 이상의 언니들에 비해 체력이 따라가지 못했던 그는 남들보다 몇배나 힘든 육체적 부담을 이겨내야 했다. 그러나 코피까지 쏟으며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훈련을 거듭하였

빠른 속도를 배향한 그의 뛰어난 득점감과 문전결속능력, 머리받기기술은 이렇듯 열렬한 조국애와 피라는 노력, 불같은 열정이 낳은 결과였다. 하기에 리금숙은 3차례의 세계여자월드컵경기대회와 6차례의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 3차례의 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 등 수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세계일류급의 기술을 소유한 명수》, 《세계축구선수들의 본보기》로 명성을 떨칠수 있었다. 축구로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데 크게 기여한 리금숙선수, 자기의 성공위에 자그마한 재능의 싹을 찾아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조국의 품이 있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일생토록 그 나날들을 잊을수가 없을것 같다.》 국제경기가 끝난 후 물려드는 기자들앞에서 리금숙은 《축구는 일개인이 아니라 팀전체의 실력에 의거해서 하는것이다. 내가 선수생활에서 거둔 모든 성과는 선수들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한것이다.》 라고 하였다며 선수생활기간 그의 돌도 없는 친구였던 인민체육인은 말한다. -취미는 무엇인가. 《책읽기를 즐겨한다.》 알고보니 리금숙은 보기 드문 독학가였다. 훈련과 경기로 이어진 선수생활기간에

도 짬만 있으면 손에 책을 들곤 한 그였다. 배움에 대한 그의 지향 또한 축구에 대한 정열 못지 않았다. 선수생활을 그만둔후에도 그는 짬짬히 체육과 학기술은 물론 외국어를 익히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속에서도 리금숙은

《북서방언론선전과 완전 달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민보》의 글중에서

얼마전 《자주민보》사이트에서 《외국인사들, 북서방언론선전과 완전 달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하고 열어보았다. 로씨야연방공산당대표단 단장인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북부오씨씨야 공화국위원회 제1비서인 카즈베코 파이싸에브가 기자회견에서 했다는 말-《조선은 아름다운 나라이며 서방언론들의 선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다.》에서 뽀는 제목이였다.

생각되는데가 많았다. 조선에 대한 기사를 쓰는 서방언론인들가운데 조선에 가본 사람이 몇이나 될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일부 서방언론사가 초대된것이 큰 소문거리로 된걸 보더라도 조선에 가본

서방언론사나 기자들의 수자는 보잘것없을것이다. 그래도 출기차게 조선에 대한 비방선전을 진행하는건 아무래도 남조선에서 흘러나간 이른바 《정보》들에 의거하지 않겠는가. 조선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모든것이 거짓선전이라는 결론을 내린 다음 남쪽의 이른바 《북정론가》들이나 《탈북자》들, 이른바 《대북소식통》들이 흘린 주장을 베끼는게 아닐가? 지금 조선은 방문하였던 외국관광객들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관광과정과 소감들을 인터넷에 올리고있다. 그중에는 이런 흥미있는 글도 있다. 귀국하니 누군가 조선이 어떻게냐고 묻더라. 그래서 《지옥이자 천당이더

수기 인생길에 돌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비행장에서 내린 나를 처음으로 맞아준것은 웃음이나 따뜻한 환대나 아닌 주위환경조차도 음산한 서울 서초구에 자리잡고있는 정보원이였다. 여기서 나는 약 2개월간 조사를 받았는데 중국에서부터 남조선에까지 오게된 동기와 로정, 가족과 주위사람들 그리고 공화국의 무력 및 정권기관에 잘 알고있는 사람이 없는가 등 별의별 심문을 다하였다. 지어 막을 장사 또는 복용하지 않았는가 하며 죄인다루듯 하였다.

그자는 통일부나 정보원의 《부락》을 받고 이런 일을 자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밥벌이가 잘된다니 자랑비슷이 털어놓는것이였다. 그때야야 비로소 나는 나와 같은 적지 않은 공화국사람들이 남조선당국의 조직적인 《탈북유도》, 회유기만책동에 의해 남조선에 끌려오고있다는것을 어렵거나 나 몰라지 않았다. 먹고살자니 돈이 있어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직업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남조선당에서 직업을 구한다는것이 조련치 않았다. 더구나 나같은 사람이 직업을 구한다는것은 하늘에 가서 벌을 따는것만치나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가까스로 도로공사에 들어가 도로세를 받는 일을 하기도 하고 《삼성DID》라는 손전화부속품회사에서 심부름근로로 일하기도 하였다. 일은 말할수 없이 고되고 힘들었다. 더우기 참을수 없었던것은 《탈북자》라는 인간적멸시와 모욕이었다. 언제인가 내가 한 회사에 입직하려고 하였는데 회사관계자는 리력서를 보자마자 웃음을 띠며 말하면서 나를 공개적으로 내쫓는것이였다. 또 《탈북자》들에게 차례지는 일자리는 남조선사람들이 하기 싫어 거부해보지도 않는 어렵고 힘든 일자리뿐

이며 같은 일을 하고도 돈은 남조선주민에 비해 몇십배나 적게 받았다. 이에 대해 말을 하면 《탈북자의 주제》라는 욕을 먹기가 심상이였다. 어느날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때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암이 아니라 염증이라고 하면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것이였다. 하지만 의사는 내가 《탈북자》라는것을 알게 되자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구실을 대면서 수술을 거부하는것이였다. 몇차례의 심한 싸움끝에 겨우 허리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돈이 없어 한달정도밖에 입원을 하지 못하고 나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장애인》 심정을 하면 돈이 나온다고 해서 알아보니 지체철도나 한번 탈수 있는 여수밖에 안되는 보잘것없는 것이였다. 그러나 어떻게 병을 치료하며 살아갈수가 있었는가. 됐기는 사람에게는 《천국》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지옥으로 되는 것이 바로 남조선이였다. 그때마다 인정과 따뜻한 지성으로 나를 위해주던 내 고향사람들과 동무들이 그리웠다. 황금정 (다음호에 계속)

↑ 리금숙의 가정 ← 학생들에게 축구요리를 가르치고있는 리금숙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 진행 우리 선수들 세계신기록 수립, 80개의 금메달 획득, 나 라 별 순 위 에 서 1 위 쟁 취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 12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엄운철 선수

이번 선수권대회는 나라들 사이의 체육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력기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대회참가자들의 의지를 보여준 회합으로 되었다.

이번 선수권대회가 훌륭히 진행되어 나라들 사이의 협조발전이 이바지한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계적인 력기강자로 내세워준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으로 훈련에서 많은 땀을 흘려온 그는 성인급 아시아구락부력기경기 추격올리기에서 169kg을 성공시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본사기자

성황리에 진행된 무도선수권쟁탈전

무도선수들의 선수권쟁탈전이 태권도전당과 태권도성지중심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태권도전당에서 날팜들의 격전이 벌어질 때 태권도성지중심에서는 민족의 슬기가 깃든 바둑경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5급부터 1단까지의 실력을 소유한 선수들이 승부를 다툰 2부류에는 앞서 진행된 지역별경기순위권입선자들과 유치원생까지 참가하였다.



본사기자

남달리 슬기롭고 문화적소양이 높으며 정서가 풍부하였던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여러가지 민족악기들을 창안하여 문화정서생활에 리용하였다.

최용남 문화성 부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악기전시회에 전국각지의 악기공장들과 재능있는 악기제작자들이 만든 우수한 민족악기들이 출품되었다고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나라의 악기공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우아한 형제, 독특한 음색을 가진 악기들

이전 전시회에 우아한 형태와 풍부한 음량, 화려한 음색을 가진 피아노들과 각이한 음역과 건반수를 가지고있는 손풍금과 바얀 등 악기들도 많이 출품되어 참관자들을 기쁘게 하였다.

평양악기공장에서 생산한 악기들 중 피아노는 물론이고 건반악기인 평양피아노합형 피아노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CMP 120형」, 「AYE 123형」, 「RS 130형」을 비롯하여 고품위피아노들을 출품하였다.

본사기자

새로운 감자음료들을 개발

최근 경공업과학분원 식료연구소에서 7가지의 새로운 감자음료들을 개발하여 내놓았다.

이것 연구소에서는 이미 전에 울지봉합작업사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 감자단물, 감자젓산발효단물과 감자젓산발효탄산단물을 만들어 감자가공품들의 가치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조선료리의 우수성은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전통적인 음식문화, 식생활풍습에 기초하고있다.

조선료리의 우수성은 우선 맛이 좋고 향기로운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산뜻하고 향기로운 맛, 생콤하고 달콤한 맛, 시원하고 상쾌한 맛, 일그러고 구수한 맛과 감칠맛 등으로 하여 조선료리는 어떤 음식이나 다 입맛을 돋우고 소화와 흡수에 좋다.

조선료리의 우수성은 색갈과 모양에 있어서 세계 각 언어 민족의 요리와 대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조선료리의 우수성은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육류와 조식료리의 우수성을 나타내었다.

단편 소설

봄의 협주곡 (5)

다음 순간 가슴속에서 무서운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변용이가?) 파장의 다음 말이 그 의문을 밀어버렸다.

글 류준, 그림 김윤일
자 연방 순부채질을 하며 숨을 가쁘게 쉰 채 처녀의 반듯한 이마에 깨알같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었다.

원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인물화를 감상하듯 처녀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무엇이 신에를 이처럼 달라지게 했을까?)

살며시 내려갈았는데 그림에서 반짝이는 두눈은 무슨 말인가 속삭이듯 깜빡거렸다. 불시에 원림은 두달전 자기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생각났다.

벌써 두번째로 듣는 소리였다. «대체 (카멜레온)이란 누구요?»

《그러지.》
초밤집을 나선 그들이 얼마쯤 걸어갔을 때 신애가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 현대 전 어디 들릴테가 있어서... 미안해요.»

《행운의 녀신》이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있었다. ... 세종로에서 접어들어 그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별써부터 고참총대를 내리던지라. 더러워서...》 실지로 변용은 흥미가 허울벗듯 후배의 매스한 자세를 아쉬움없이 털어버리고있었다. 그는 이즈음 찍하면 늦게 나왔고 고참들앞에서 두 머리를 잔뜩 쳐들고 다녔다.



본사기자